

전통 민요 부르는 소리꾼

## 에펠명과 사장 **방만재**

지난 4월 23일 롯데삼강이 주최한 제과인의 밤에 게스트로 출연. 멋드러지게 창부타령과 진도아리랑을 열창한 방만재씨. 강서구 공항동에서 에펠명과를 경영하면서 언제 그렇게 멋진 노래가락을 익혔을까.

“우리의 전통 노래가락을 좋아 했지요. 그중에서 경기민요는 서도창과 겸해서 쉽게 부를 수 있어 좋고 가사 말이 우리네 어머니들의 한과 삶이 서려 있어 즐겨 부릅니다.”

위장이 나빠 시작한 민요지만 문인협회가 주관하는 강서구민의 날 행사에 장기자랑으로 동상을 받기도 했고 가로수를 누비며 라디오프로에도 출연하기도 했다.

알고보니 지역사회에서 그는 익히 알려진 소리꾼이다. 복지회관이나 양로원을 순회하며 노래가락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노인들을 방문해 장구를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93년부터다.

“우리 민요 가사에는 우리네 삶이 배어 있지요. 3박자로 흥을 돋우는 장단인데도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을 보고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는 툼툼히 시간을 내 장구를 들고 나선다.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70년 상경해 어렵게 제과일을 시작한 그는 고생 끝에 지금은 안정을 이뤘 2남 1녀를 두고 있다. 자신의 노래를 듣고 즐거워하는 노인들을 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된다는 그는 결코 이 이일이 봉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씩씩워 한다. 젊었을 적 한때 영화 포스터를 그린 그는 동양화 솜씨도 보통이 아니다.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제과점 일에는 취미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취미를 한두가지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는 더 나이가 들기전에 무엇이든 열심히 익혀 둘 작정이다. 자신의 즐거움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데 제과인의 동참을 바라는 그에게 건강한 시민상을 얻을 수 있다.



## 재활용 케이크 밀반침 국내 첫 생산 양지포장 사장 **김철환**

“이번에 생산한 케이크 밀반침은 기존의 비닐 코팅을 하지 않고도 특수 표면 처리로 기름과 수분이 스며 들지 않아 마닐라 종이의 형광 물질이 케이크에 닿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쓰레기 가능 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케이크 밀반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양지포장 김철환 사장의 설명이다.

김철환 사장이 재활용 케이크 밀반침 생산을 생각해 된 것은 94년 2월쯤부터. 이어 올해 1월 전격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 기존 비닐 코팅케이크 밀반이 재활용 쓰레기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산 의지를 굳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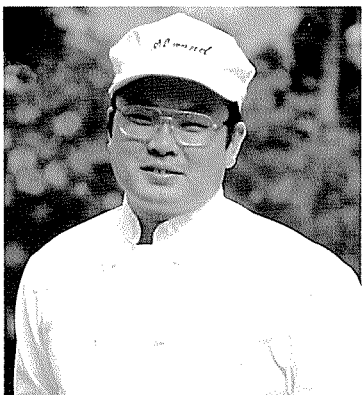
현재 양지포장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케이크 밀반의 비결은 식물성 기름과 식품 색소 등으로 표면 처리해 케이크의 기름과 수분이 종이에 배어나지 않는다는 점.

케이크를 올려 놓고 자체 실험도 해보았고 공신력을 위해 외부기관 검사를 거쳤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 결과 테레,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중발 잔류물과 마강살칼롬 소비량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 재활용 마크와 환경 마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철환 사장은 “최근 소비자의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요인 기피현상이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활용 쓰레기 가능 케이크 밀반을 계기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과점에서 환경문제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 대학교 졸업하고 제과기술 배우는



## 아몬드제과점 **박정현**

새벽 5시에 시작되는 박정현씨의 하루는 반죽을 만지는 것부터 시작된다. 제과업에 입문한 지 이제 3개월 남짓. 초보 기술인이다. ‘스물일곱’이라는

적지않은 나이에 제과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그의 사연이 재미 있다.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2급 정교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박정현씨가 작년에 제과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좋아하는 빵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오리에 관심이 많아 강릉에서 자취생활을 할 때는 솜씨를 발휘해 친구들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인기가 제일 좋았죠”

그후 제과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아몬드제과점에 입사했다. 남보다 앞서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생스럽긴 하지만 준양산업체보다는 지역제과점에서 일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에게도 앞선 의욕 만큼 힘든 일이 많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한다고 다짐을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은 그도 고통스럽다. 그래도 일이 재미있어서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

다. 이제는 적응이 돼서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에게 제과업계  
의 첫인상을 물으니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며 겸손함과 조  
심스러움을 보였다.

“제과학교를 다니면서 두번 실습을 나갔는데 기술인은 ‘고집이 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A제과점에서 배웠던 기술을 B제과점에서는 인정을 해  
주지 않더군요. ‘그건 틀렸다’는 지적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목표는 물론 ‘나의 제과점’을 갖는 것이다. 또 기회가 닿는다면 미국  
AIB와 일본에서 선진 기술을 익히고 싶은 욕심도 있다.

박정현씨처럼 제과인들의 학력도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오직 따뜻한 시선이다.

## 발로 뛰는 대전 주재기자 신라당제과 사장 원귀식

“소형 점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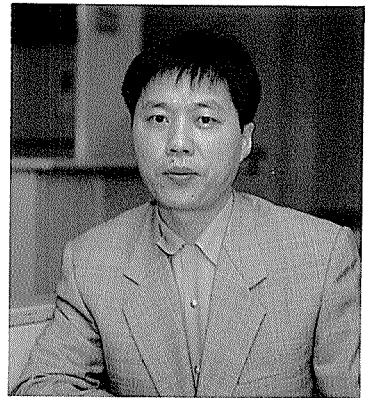
원귀식 씨(39세)는 본지에 대해 애정 어린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는 대전 광역시 석교동에서 ‘신라당’이라는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본지 대전주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가 주재기자를 맡은 건 대전지역 소규모 업체의 소식들을 자세하게 알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다짐대로 꾸준히 대전의 소식을 보내온다. 지면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의 소식 보따리를 다 풀어 놓지  
못하는 게 미안할 뿐이다. 그는 마당발로 통한다. 협회일에도 남다른 정성을 쏟는다. 지난 86년부터 2년간 지  
회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대전 중구지부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44기 연수반 출신이다. 작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제과업에 발을 디뎠다고 한다. 가게는 올해로 10년이 됐다.  
요즘은 효율적인 점포운영을 위해 컴퓨터에 열중이다.

“점포운영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소개했으면 합니다. ‘우리집 인기제품’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  
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인기있는 지면이죠”

본지에는 13명의 지방주재기자가 있다. 그들은 제과업계의 동향을 폭넓게 보도하기 위해 애쓴다. 그중 원  
씨의 활동은 단연 으뜸이다. 그래서 주재기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도 구체적이다. “주재기자의  
기사를 ‘기자수첩’이나 ‘기자메모’의 형태로 고정란을 만들어 게재하는 것은 어떨까요? 고정란이 있으니 더  
욱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지난 5월 5일과 7일에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는 훈훈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가슴 뭉클한 광경이 펼쳐졌다.  
장애 아동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 및 이벤트가 열렸던 것이다.

“처음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해 아이들과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같이 놀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데 5월 5일에 각 대학의 미대교수들이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파는 장애인돕기 자선바자회를 연다고 하기에 그  
것과 때를 맞춰 이벤트를 여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중론이 모아진 것입니다”

이경학 전무와 평소 친분이 있던 복지관 관장을 매개로 개최된 이번 이벤트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5월 7  
일이 일요일인데다 날씨도 화창해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과 가족들이 이벤트의 취지를 가상히 여겨 적  
극 참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저희같은 경우 평소에 회원업소 이벤트를 주관하다 보니 동물인형쇼나 동물모형 풍선 등을 항상 비치해 두  
고 있어 특별한 준비가 필요없었죠. 풍선을 개당 1,000원에 판매했는데 보라매공원 내 어린이들 중 동물풍선  
을 듣지 않는 어린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스컨설팅의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벌인 이날의 행  
사를 통해 이 전무는 우리나라 국민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회고했다.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받아들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민성이라는 이야기인 듯 하다.

또 파천 경마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인데, 여기에도 참여해 잠시나마 소외받는 장애인들  
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이 전무의 작은 소망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따뜻해 짐을 느낀다.



## 장애아동돕기 이벤트 연

## 김스컨설팅 전무 이경학